water
LeveL-fighting
침수에 대항하는 건축의 도전

지구 온난화에따른 기후 변화로 침수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홍수로 인한 수면 변화폭이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침수지역 놓인 건축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만도 약시 2100년 까지 서울이 네 배 가까운 면적이 침수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제 건축에서 '물'은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흡수해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놀라워는 수면 개발을 구사하며 이들 지면지역 활용하려는 건축가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에부르 폰더(polder)라는 인공 대지를 개발함으로써 물을 극복한 네덜란드의 홍수 재난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던 뉴올리언스 정부가 도입한 워터스튜디오와 NGM 사의 홍 계획 주택 안을 소개한다. 또한 영국 리버풀 경영보험사인 노르위치 유니온과 영국 왕립건축가협회가 개최한 2008 홍수주택디자인공모전의 당선작을 통해 수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본다. 이들은 물이 재난 요소이기보다 개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소중한 이나 보수 관리, 수명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면. 즉 기존 도시보다 탄력 나게 적응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도시 재 수용 건이 가진 잠재력을 이용해 기존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공공 주택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로 여러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카고와 네덜란드의 건축가들이 당신. 우리는